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3.12.10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블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뱃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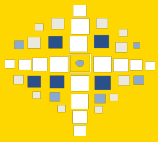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주일에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자

입례송.....〈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왕 이 신 나 의 하 나 님 - 내 가 - 주 를 높 이 고 -
- 영 원 히 주 의 이 름 을 - 송 축 하 리 이 다

성시 교독.....〈요한계시록 21장〉..... 다같이

(인도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성도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인도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성도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인도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성도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인도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인도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도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인도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다같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참회 기도.....〈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 **〈마태복음 5:1-20〉** **다같이**

말씀 듣기와 묵상 **다같이**

말씀 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김명철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F C Dm Gm C³ F

사 랑 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4



1-2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3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4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6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7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8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 너희는 바깥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9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10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11-12 그분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13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14-16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 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환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환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 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17-18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 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역사할 것이다.

19-20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묵상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듣기



감사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Words and Music by Henry Smith

거룩하신 하나님 - 주께 감사드리세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나

의 맘과 뜻 다해 - 주를 사랑합니다 -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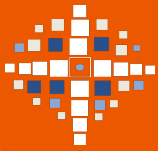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 - 사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 - 사 감사 -



▶ 직업학교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전 편지에 '현지인 사역자 자립 프로젝트'(가칭)의 이름으로 구상하는 직업학교를 추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선임 선교사들에게 조언을 요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역자 자립을 목표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에 마음을 두기 보다 돈만 좇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자립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서둘러서 일만 추진하지 말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사역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면 쉽게 빨리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선교사)이 빠지면 금방 무너진다. 먼저 사람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힘이 생긴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을 막 추진하려고 했던 구 선교사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자 삼지 않고 바로 사역에만 몰두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듣고 봤었는데 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성경공부를 통해 사람들을 더 키우면서, 직업학교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과 주변 선 교사님들의 협력을 고려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총장님과 협의해 올해 안에 한가지 학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 주일학교 소식

쿠미대학교 채플 주일학교는 상반기보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것이 좋았으나 이제는 점점 책임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아이들이 500명에 육박하면서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워 주일학교를 두 파트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함께 일했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쉬게 되면서 전에 주일학교를 함께 섬겼던 선교사님이 합류했습니다. 그래도 차고 넘치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함 선교사가 맡은 큰 아이들 파트는 더 많은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이들을 훈련하여 교사들을 충원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 파트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반으로 나눌 계획인데 유치부를 인도할 책임자가 선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한 교회가 쿠미대 주일학교를 자기 교회의 주일학교로 생각하고 헌금하겠다는 후원금을 보내주시기 시작했고 개인 후원자들도 헌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교회 때문에 사역하는 우리 마음에 격려가 되고 사 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더 잘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교과서를 비롯해 책을 접할 수 없는 이곳 시골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싶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아침 7시 30분이면 아이들이 벌써 모여듭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9시까지 할 일도 없고, 보살핌도 없는 아이들이 예배 당 주변을 서성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대와 몇 가지 편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도 구상 중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계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함 선교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돕는 교사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 편지는 다음주에 이어집니다.....)



교회안내

하나님나라를 위한 길목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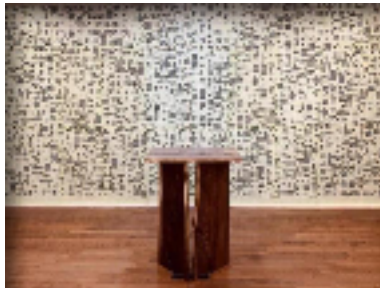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의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주 설교 권면

오늘 설교 권면 해주신 김명철 목사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

12월 24일 식사 섬김

이번 12월 식사 섬김은 이건명-김고은 집사님 가정에서 신청해주셨습니다. 가정에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되길 소망하며 그 기쁨들이 길목교회 공동체안에서 계속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

* 감사한 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4주 식사섬김 신청받습니다.

1주 - 도시락/ 2주 - 라면/ 3주-밀키트/ 4주-성도참여/ 5주-랜덤

12월 예배 일정

12월24일 - 성탄축하 예배 (25일에는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월31일 - 오전11시-12시30분: 주일예배 (식사 및 커피토크 없습니다)

12월31일 - 오후9시-11시: 송구영신 모임 / 오후11시-새벽12:30: 송구영신 예배

구영삼-함윤숙 선교사님 사역 후원

매월 첫주에 후원 송금이 될 수 있도록 잊지 마세요 ^^

교회 사역 일정

12.16(토) - KCC 모임 (오전10시-오후5시)

12.17(주일) - 이길주 목사 영상 설교

담임목사 해외 사역 일정

11.28~12.17 터키, 이탈리아